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5
----------	------

발의연월일 : 2024. 8. 22.

발 의 자 : 황 희 · 어기구 · 이용선
한민수 · 박 정 · 이기현
김태년 · 차지호 · 이학영
문진석 · 박수현 · 문대림
민홍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의3 신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 도로의 파손,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

2. 천재지변,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② 도로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간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 및 경고표지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0조의3(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 도로의 파손,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u></p> <p><u>1.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u></p> <p><u>2. 천재지변,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u></p> <p><u>② 도로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간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 및 경고표지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p>